



보도시점

2025.11.12.(수) 14:00  
(2025.11.13.(목) 조간)

배포 2025.11.12.(수) 09:00

## 선박 사이버공격, 신속히 대응한다!

### 민·관 ‘선박 사이버공격 대응 모의훈련’ 실시

- 과기정통부, 해양수산부, 해경청, HMM,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참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이하 ‘해수부’),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 이하 ‘해경’),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HMM오션서비스(대표이사 김규봉)와 함께 ‘25년 11월 12일(수) 부산 HMM오션서비스 본사 선박 종합상황실에서 민·관 합동 ‘선박 사이버공격 침해사고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 2024년 11월 국내 최초로 진행되었던 선박 사이버공격을 가정한 민·관 합동훈련에 이어 두 번째로, 최근 선박과 육상 간 위성을 통한 통신 연계가 일상화되고 이에 따른 선박 운항 체계(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선박 사이버공격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훈련은 실제 해상에서 운항하고 있는 선박의 전자해도에 납치 소프트웨어(랜섬웨어)가 설치되어 선박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 사이버공격 징후 감지 ▲ 상황 전파·신고 ▲ 대응·복구 ▲ 피해 조사 등 사이버공격에 따른 대응 전 과정에 대한 각본(시나리오)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과기정통부 임정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훈련은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관계기관과 선박회사 간 면밀한 공조와 연계를 실전과 같이 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라며, “축적되는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박뿐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 모의훈련을 확장해 민간의 사이버 대응 역량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선박은 우리나라 물류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해상공급망의 핵심 자원이다.”라며, “이번 훈련을 토대로 선박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분야의 체계(시스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	책임자	과장	최영선 (044-202-6450)
		담당자	사무관	박세진 (044-202-6455)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민중 (044-200-5810)
		담당자	사무관	최종영 (044-200-5815)
담당 부서	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과	책임자	과장	정태연 (032-835-2056)
		담당자	경감	정영록 (032-835-2256)
유관 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제품보안팀	책임자	팀장	서민석 (061-820-3850)
		담당자	책임	김지명 (061-820-3853)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지능정보브리핑



□ **훈련 개요**

- (목적) 운항 선박의 침해사고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민·관 합동 체계 검증 및 기관 간 공조 역량 강화
- (일시/장소) '25.11.12(수), 14:00~16:00 / HMM오션서비스 본사 상황실
- (주최) 과기정통부, 해수부, 해경 (주관) KISA, HMM오션서비스, 한국선급
- (훈련선박) HMM 헬싱키

□ **훈련방식 및 절차**

- (훈련방식) 실제 선박 운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뮬레이션 기반 훈련으로, 가상의 침해사고 시나리오를 설정한 도상훈련
  - ※ (도상훈련) 훈련 중 실제 운항 선박에 대한 안정성 확보 및 예기치 못한 영향 예방
- (훈련절차)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 사고인지 및 관계부처 협조요청 → KISA 사고분석 지원 → 선박 복구 및 종료
  - ※ 사전 제작한 해커의 선박 사이버침투 영상을 기점으로 하여 선박 사고 상황 전개

